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 추석,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모처럼 안갯속에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추석 가족이 안갯속에 모일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 모범을 깨닫는다.

### 예배순서

목도	.....	다함께
성시	..... 시편 23:1-2	인도자
찬송	..... 434장	다함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	다함께
성경봉독	..... 시편 33:1-5	인도자
메시지	..... "할렐루야로 찬양하라"	인도자
찬송	..... 305장	다함께
주기도문	.....	다함께

인도: 가족중 어른

### “할렐루야로 찬양하라”

(시146:1-10)

감사의 절기인 추석에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로 노래의 제목을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는 '할렐' (Hallel, 찬양하라)과 '야' (Jah, 야훼의 단축형)의 합성어로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 I. 성민 평생의 과제(1-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1)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다(2)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감사의 응답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북한 핵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큼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예배는 첫째 일(Work)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는 감동없는 수동적 상태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요6:28). 그러므로 할렐루야로 예배를 드리되 힘써 드려야 합니다.

둘째 예배는 우리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마음으로 생각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셋째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 인해 가능합니다. 성경으로 자기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말씀 선포가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넷째 예배는 개인적입니다. 누구도 남을 대신하여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모여 예배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각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 II. 유일한 찬양의 대상(3-5)

시인은 3-4절에서 도울 힘이 없는 귀인도,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지만 인생(아담)은 흙 또는 먼지이고, 호흡은 코에 있나니 썩할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지만 어떤 문제도, 긴급사항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조상에게 복을 빌거나 다른 어떤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5)'

#### III. 가장 큰 복 주신 이에게 감사하자(6-10)

마지막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에게 큰 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우리 소망되시며, 둘째 여호와는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셋째 여호와는 강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7), 영적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넷째 여호와는 맹인들의 눈을 여십니다(8). 성경을 진리로 알고,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다섯째 여호와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8).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섯째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8). 사랑은 행동(action)이라기보다는 태도(attitude)입니다. 일곱째 여호와는 나그네를 보호하십니다(9).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방어능력 없는 이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시145:20)

#### 맺는말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10).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고 완전하신 선포 능력을 가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로 찬송합시다. 추석을 맞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03 열린바자의 열매로 구제하다

## 9월8일(월) 강남구청회의실에서 전달키로 해

지난 주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동안 교회1층과 앞뜰 그리고 한티공원에서 열렸던 2003 이웃사랑 교회사랑 열린바자를 은혜중에 마친 우리교회는 주님이 3일동안 성도와 이웃주민들의 많은 발길을 허락하셔서 귀한 사랑의 물질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이에따라 교회는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로 작정하고 강남구청내 환경미화원 575명에게 쌀쌀한 날씨에 큰 도움이 될 방수 보온 파카 345벌과 스포리스 스포츠화 230족(시가 69,000,000원 상당)을 전달키로 하였으며, 독거노인과 탈북자,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등 160명에게는 이번 추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 가정당 10만원

씩 총 16,000,000원의 추석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내구제와 기관(장애인 단체)구제도 한다.

환경미화원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과 독거노인 탈북자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달할 추석 위로금은 강남구청을 통해 전달하게 되어 내일-9월 8일 월요일-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과 구제위원장 정병무 장로, 바자위원장 김광신 장로, 재정위원장 오정수 장로 등이 강남구청을 방문하여 강남구청회의실에서 간부회의의 시간에 전달하게 된다.

우리교회가 더욱 많은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은 성도들의 계속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추석 연휴를 기쁘고 은혜롭게 맞이하도록-

이번 주 수요일이면 올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다녀왔고 이번 3일의 연휴기간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이 명절만 되면 항상 어려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제사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번 추석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아 아직 복

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에게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이번 주 순례자 1면에 추석이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추석예배의 모범을 개제하였다. 고향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안 믿는 가족들의 양심과 전도를 위해 삼가고 기도하는 추석연휴가 되도록 하자.

### 8월 새가족 환영의 시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8월 새가족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병익 강수남 강요셉 강요셉 강정주 강찬양 고은옥 고혜선 고화경 김다웅 김명교 김명순김명현 김미성 김미숙 김미자 김민준 김민진 김상우 김선미 김성은 김성희 김수경 김안 김영남 김영선 김영순 김영은 김영태 김예영 김은비 김이수 김인영 김중훈 김창영 김철수 김태수 김형준 김혜민 김환이 남강근 남지수 남홍근 류상철 류승연 류혜진 류호인 박단아 박동준 박미정 박미진 박서현 박재영 박지수 박지환 박진희 박형서 박혜우 백지원 서세준 서세준 서정선 손지훈 송경옥 송은석 송은선 송창기 송하연 신미숙 안경옥

안수진 안정민 오성민 오지민 오창호 우부선 윤익희 윤희승 이가은 이고은 이근수 이미숙이상현 이석영 이선표 이승훈 이우철 이원석 이은경 이정수 이주영 이준영 이지은 이지은이진영 이충원 이향란 이향욱 이현규 이혜연 이혜진 장미선 장정원 장준영 장항자 전영복 정다미 정서영 정아름 정현모 주창원 차민정 차성호 차재은 차정훈 차채린 차채린 최경분최경진 최금자 최길남 최서우 최영철 최재욱 하영자 허애숙 허원선 허원준 홍중혁 황규영 아끼오 아오끼 Michael Gedemer (이상 132명)

- #### 기관별 식당 봉사자
- 9. 7(주)-한나여전도회
  - 9. 14(주)-당회원
  - 9. 24(주)-스데반 회
  - 9. 28(주)-권사회
  - 10. 5(주) - 빌립남선교회
  - 10. 12(주)-안드레 남선교회
  - 10. 19(주)-베드로 남선교회
  - 10. 26(주)-바울 남선교회

## 제사,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상은 목사(1,2교구 담임)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톨릭을 비롯해서 제사제도를 전통문화의 하나로 보면서 허용하려는 입장이 있지만 제사제도는 그 사상체계를 보거나 기독교와 얽힌 역사적 상황들을 볼 때 허용될 수 없다.

우선 제사제도는 하나의 종교적인 제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제사제도는 고대사회에서 사머니즘과 결부하여 죽은 사람의 영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되어,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불교의 영향을 받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내려온 것으로 본다. 이때 제사제도의 모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유교의 경우 조상제사는 사후에도 효를 다해야 한다는 효에 대한 강조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조상숭배라는 종교적 단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이냐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의식들이 발전되게 되는 것이다. 조상제사에서는 죽은 혼은 구중천을 헤매고 다니며 죽은

날에는 옛집을 찾아와 제사를 먹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주기도 한다고 믿는다.

또한 제사문제는 기독교 역사를 생각할 때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하며,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제사문제였던 것이다. 기독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사 거부나 이와 관련된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고난을 겪고 순교한 이들의 숫자는 참으로 많고, 백여 년 먼저 이 땅에 들어와 1791년 윤지충, 권상연이 폐제분주(廢祭分主)의 죄명으로 참수를 당한 이래 100년 간 1만 여명이 순교의 피를 흘린 가톨릭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제사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교회가 흘린 피와 박해와 고난은 참으로 엄청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제사제도의 거부부는 한국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선배들이 목숨 걸고 이뤄내려고 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예배와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못 박아 말한다. 비록 기독교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믿음의 조상 열조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일은 기독교인에게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전근대 사회에서 시작된 제사제도가 오늘날에까지도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종종 제사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기복사상, 죽은 사람의 혼에 대

한 두려움 등에서 벗어나려는 욕구, 그리고 전통으로 굳어진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일으키는 부작용에 대한 부담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아직도 제사제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사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또한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하는 가운데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회복하는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

### 9월중 행사계획

- 9.3(수)-9.5(금) 2003 열린바자(교회사랑, 이웃사랑)
- 9.4(목) 대치동 목사회
- 9.7(주) 교육위원회, 새가족환영회
- 9.8(월)-11.10(월) 제2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9.8(월) 제14학기 서울 성경대학 개강
- 9.9(화) 제6학기 주부대학 개강
- 9.13(토) 피택자 교육
- 9.14(주) 전도위원회/교사양성반 개강
- 9.18(목) 교구일꾼 양성반 개강
- 9.19(금) 제7학기 살롬경도대학 개강
- 9.21(주) 다락방 개학
- 9.21(주) 교구위원회
- 9.22(월)-9.26(금) 장로회 총회(주안교회)
- 9.28(주) 대학부 헌신예배/찬양위원회/선교현금



# 이웃사랑 · 교회사랑 2003년 열린 바자

이웃사랑과 교회사랑의 주제로 2003년 열린 바자회의 박이 올랐다  
아침에는 비가 왔으나 족족이 갠 날씨는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이웃의 마음도 열려 열린 바자회의 성공을 예감했다.

전날부터 시설부의 땀과 정성으로 천막시장이 세워지고 그들의 땀사적인 노고 끝에 한티공원 숲 속까지 푸르른 장터가 아름답게 세워졌다.



은 교회의 완벽한 준비로 오색 대 이프가 컷팅 되면서 서울 교회 바자 축제가 시작 되었다.

교회 정문 앞에서 부터 8층 만나홀과 한 티공원까지 이어진 시장에는 생필품에서 의상, 구두, 화장품, 식품, 약품(한약재), 액세

서리, 날라리패션, 안경, 시계, 츄리닝, 백 갖가지음식 음료, 문구 등등 셀 수없이 종류가 많아 한 동네 가 완전한 서울마트로 자리 잡았다.

창립이후 작년까지는 건축과 헌당을 위한 바자를 열었지만 올해는 교회사랑과 이웃사랑을 위한 대강령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아름다운 기회였다.

1교구부터 14교구까지 교구별 표어로 이번 열린 바자는 더 이채로웠다. 3교구 표어는 '그러나 사랑을 팔아요.' 4교구 '여기있는 상품은 공홀이 주원료예요' 5교구 '자비가 빠진 물건은 반품받습니다.' 13교구 '왔노라! 샀노라! 그래서 행복이여라' 교구별 표어만 모아도 모두가 사랑당어리고 그 사랑을 큰 광주리에 이고 다니는 서울교회 열린바자다.

열린 장터에 이종윤 목사님께서 고객으로 찾아오셨다. 목사님께서 열린바자의 소감은 푸르른 숲 속 열려진 장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직접 주문하신 갖가지 음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다 맛있는데 그 중에 옥수수가 맛있다고 한 알씩 떼어 잡수시는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라는 일체감을 느껴 모두들

행복해 하였다

에마다부에서는 버스 정류장을 끼고 서울호떡집을 차렸다. 호떡이요 호떡!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호떡을 사노라 온 동네가 줄을 지어 난리법석이다. 호떡의 맛을 내는 단꿀처럼 알콩달콩 호떡집에 불났다네!

빈대떡과 해물전 부치는 냄새로 오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한 3교구와 6교구는 대치동에 변상하라! 지금도 코에 빈대떡 냄새로 가득하다. 아마도 체일 많이 팔지 않았을까?

김치장사 12교구는 며칠 전부터 양념 준비하느라 바빠 뛰어 다니더니 2시간 만에 다 팔렸다. 남집사님들이 도우셔서 이번 김치 맛은 더욱 맛갈스러우며 애쓰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빨간 김치보다 더 빨간 영혼의 빛깔로 채색되어 하늘나라 상급으로 빛나고 있으리라.

8층 만나홀 식당가에는 갖가지 음식으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메뉴로는 곰탕(9) 삼계탕(11) 비빔밥(13) 우리 밀 칼국수(2)로 다양하다. 삼계탕을 끓이느라 닭 잡으러 밭이 부르드도록 뛰어 다녔단다. 오색나물에 제란 프라이로 덮은 비빔밥은 우리의 시장기를 재촉한다 얼마나 맛있을까?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다고~~. 곰탕과 칼국수, 수제비, 우거지탕은 촉촉한 가을날씨에 딱끈한 국물 맛이 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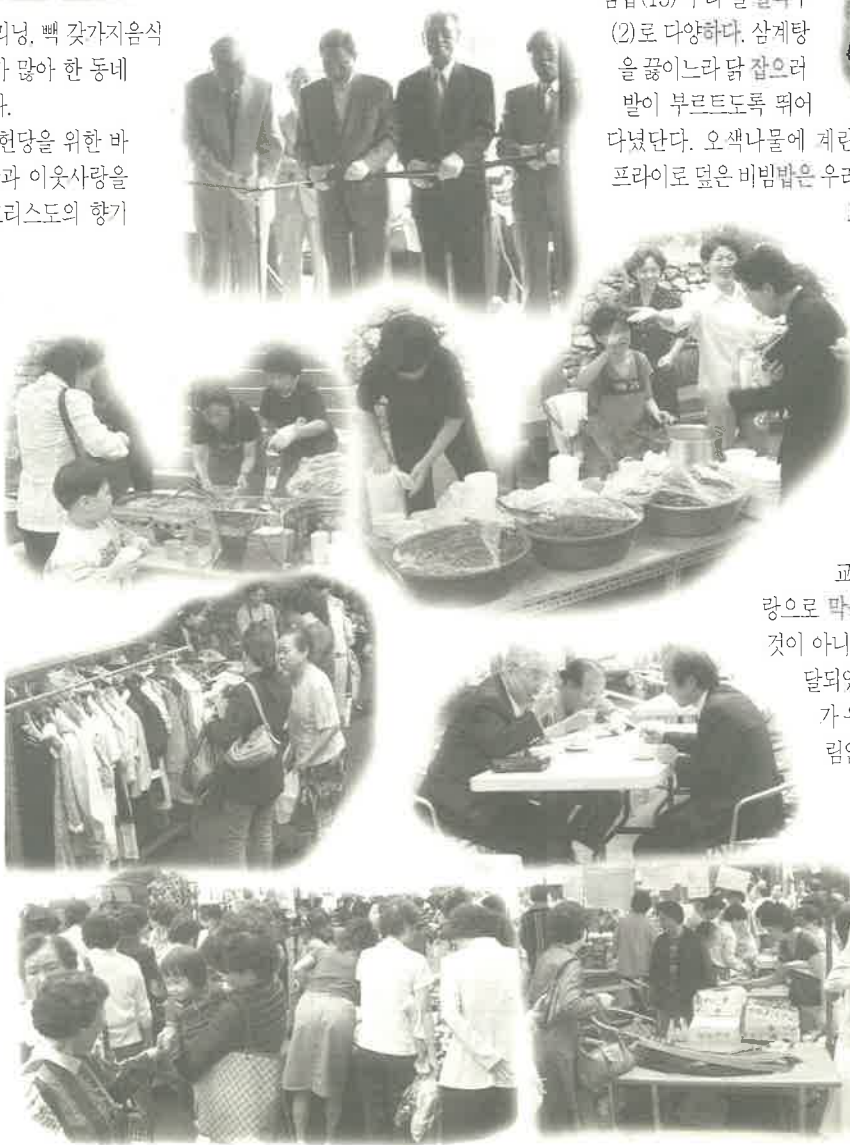
한 코너 한 코너마다 땀과 정성과 기도가 한 그릇씩 담겨져 나올 때마다 입으로 먹기보다는 마음으로 먹는 심정으로 가슴에 담는다. 그 외의 많은 코너들도 하나님 이 보셨고 또 다 만지셨으며 다 달아보셨고 모두들 수고의 땀은 하늘나라 보석으로 화 관되어 반짝이고 있으리라!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한 열린 바자회가 이제 사랑으로 막을 내린다. 무엇을 얼마나 팔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이웃에 얼마나 아름답게 전달되었고 하늘나라가 그들 가슴에 얼마나 임하였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자회 후기 기도제목에 틀림없다

이번 열린바자의 위원장을 맡으신 김광선 장로님께서는 이웃을 위한 사랑과 교회를 위한 사랑의 뼈를 짚는 심정으로 땀과 정성을 다했다고 서울교회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실천하는 기회였다고 우리의 열심에 기쁨을 토하셨다

내년 바자회는 더 은혜롭고 성숙한 의식을 회복하는 최고의 잔치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편집부 신동기, 유대서)





# 제3회 새가족부 Homecoming Day



## 내가 체험한 기도의 능력

노용진성도(13교구)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알리는 게 두려워 며칠 동안이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6개월 정도 매일 같이 기도한 일이 최근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새가족부에서 배운 여러 선생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직접 체험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싶어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지 12년째 되었습니다. 그 동안 귀여운 아들, 딸도 낳고 별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3년 전부터 저희 가정에 조금씩 덕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전부터 재미삼아 가끔씩 친구들과 어울려 포카를 하였었는데 3년 전부터는 부쩍 심해져서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가 더욱 심해지자 저는 도박을 멀리하고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이사할 곳을 찾다가 직장에서 가깝고 교육열이 높은 이곳 대치동으로 올 2월에 이사하게 되었고 지난 2년여 시간동안 아이들과 집사들에게 잘못한 것을 보상하는 심정으로 일찍 퇴근하여 나름대로 모범적인 가정이 되고자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2년여 동안의 후유증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제가 아무리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하여도 별로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것처럼 혼자서 힘들게 애들을 키우며 이미 깊어진 아내의 우울증은 어떤 치료로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한계상황이 오면 종교를 찾는다는 말이 있더군요. 지난 40여 년 동안 종교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는 저였지만 어느 날 북독에서 바라다 본 서울교회의 십자가를 보며 문득 교회에 한 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3월에 저와 아이들은 서울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는 두 달이면 수료하지만 저는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면 새가족부를 같이 이수하고 싶어서 수료하지 않고 계속 남아서 집사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저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반쯤 체념한 마음으로 지난 7월 새가족부를 수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느 날부터 저에게 조금씩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웃음 한번 없던 아내의 얼굴이 언젠가부터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드디어 제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새 가족이 나란히 앉아 주일 예배를 보는 도중 저는 저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외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걸 감사히 여기며 거름나는 성도로서 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안에서 신앙을 성장시키며 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정

- 이종윤 목사는 8일(월) 한국교회혁신연구원 제2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을 한다. 9일(화) 한국기독교 학술원 이사회에 참석한다.
- 이사·강현중, 김광해 집사(5교구) 파견 중앙동 주공@ 1023-201 이상호 집사·김차순 권사(7교구) 마포구 연남동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105-801, 336-3366
- 홍중표 위성남 집사(12교구) 경기도 용인시 구성 2차 삼성 래미안 203-1904, 031-285-1820
- 최은석 집사(13교구) 대치동 현대아파트 107
- 금주의 식사: 이승우 집사, 서경숙 집사 가정 (회복의 때를 주심에 감사)

##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를 마치고

오광환 집사(고등부 부장)

8월 22일(금) 오후 6시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로 몰려와 701호 마루방 집회실로 모여 들었다. 대학부와 고등부 NLC(New Life in Christ) 찬양인도팀의 인도로 찬양을 시작했다. 금년에는 중·고등부가 연합하여 여름수련회를 같이 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 연합 찬양 집회를 하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대학부 선배들과 고등부 NLC대원의 인도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1시간 30분동안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고등부를 지도하시는 오정식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현대 학생들이 지켜야 할 믿음생활,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

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어 50분간 기도시간을 갖고 한 지체로서의 의무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기독교학생으로 전도의 사명과 서로를 축복하며, 특별히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선배들을 위해 뜨거운 기도를 올렸다.

학생시절에 수련회나 이런 집회의 시간이 아니고는 이렇게 오랜시간 은혜롭게 찬양하며 기도하기 어려운데 귀한 경험과 새 학기를 맞아 믿음을 다지고 친구들과의 유대를 통해 복음을 전하여 학원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결단의 계기가 되었다.

많은 교회들이 성인 위주의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청소년기인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도할 때, 이 나라와 교회의 앞날이 밝게 성장할 수 있음을 목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로 등록하는 성도님들이 속히 교회에 정착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목회자 신학세미나, 경로대학, 주부대학, 성경대학 등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거리